

뉴스커추게



허가 때 에너지 절약 점검 열관리 계획 후 新·改築

全斗煥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앞으로 정부 각부처는 모든 정책입안시 반드시 에너지절약과 연결지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선 모든 정부 공공시설은 열 관리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철저히 세운 뒤 신·개축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에너지소비절약 대책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일반건물의 신축허가 때에는 행정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유의하되 꼭 에너지절약계획을 점검한 뒤 허가해 주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에너지소비절약은 지난날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에너지절약이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명심, 명확한 절약목표액을 설정하여 정부, 기업 가계등이 모두 합심, 에너지절약 운동을 범국민적·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기업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이 기업·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잘 인식시켜 국민 모두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기업인들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시설의 대체나 투자 등 원가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한 후 이윤이 남을 때에는 5년정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金眞一교수 學會長에 피선 건축학회 정기총회 개최

大韓建築學會는 지난달 28일 하오 4시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에 한양대 교수 金眞一씨와 부회장 辛鉉植 중앙대교수를 인준하는 한편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지었다.

총계학술발표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그리고 올 연구사업으로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적극 전개, 건축학술 기술에 있어 세분된 전문분야별로 개발을 요하는 것 가운데 우선적인 것을 선정 연구키로 했으며 2회 학술발표회와 위탁연구용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계획으로는 회지를 隔月間 6회를 발행하는 등 7개항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학회는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총규모 2억 3천 938만 1천 446원으로 짜여진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회장단지명위원회가 지명한 회장 金眞一씨(한양대교수)와 부회장 辛鉉植씨(중앙대교수)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금년도 학회상은 △공로상에 劉惠鎬씨 △학술상에 都映州씨 △기술상에 崔珣喆씨 △작품상에 金重業씨에 각각 주어졌다.

건축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상오 9시부터는 각 분야별로 총계학술발표회를 가졌는데 학술발표회에는 약 500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複合빌딩 신축허용키로 상업지 都心재개발 지역

상업지역내의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복합빌딩 신축이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건설부가 재개발사업으로 짓는 빌딩에 대해 출입구 시설을 별도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병원 호텔 극장 등 유흥시설을 같은 건물안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따라 도심지 재개발사업에서는 종전의 서울 낙원상가와 같은 복합빌딩이 잇따라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고층빌딩과 도심지 내 지상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신축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케하고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하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3층 이상이나 바닥 면적이 1천㎡(3백평) 이상인 예식장과 회의실·강당 등 모든 집회시설, 그리고 바닥면적이 6백60㎡(2백평) 이상의 카바레·나이트 클럽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케 하는 등 옥외 피난계단설치 의무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3층 이상의 극장과 연극공연장에 한해 옥외 피난계단 시설을 설치토록 했었다. 현행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용케 돼있는 KS 자재품목 또한 현재 27개 품목에서 65개 품목으로 늘렸다.

不法건축물 實態조사 道別로 9개 合同班 편성

정부는 도로변의 불법건축물과 난립돼 있는 휴게소를 정비키 위해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도로변의

接道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규제돼 있는 도로변의 接道구역에서 기존건축물 증축이 늘어나고 특히 유사 휴게소가 난립돼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부와 내무부가 합동으로 도별로 9개 조사반을 구성,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고속도로 양편의 접도구역 25~30m, 4차선국도변 7~15m, 2차선 5~15m, 지방 및 郡道 辺 5~10m 내의 기존건축물 증축여부, 불법 신축건물 등과 건설부의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지침에 의해 허가받지 않고 식당 등 간이매점 행위를 하는 도로변 업소들이다.

정부는 이번 도로변의 접도구역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건축물 및 유사 휴게소에 대한 정비 및 단속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국도변 휴게소의 경우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지침에 의해 신설된 휴게소는 70여개소인데 최근에는 접도구역 인근에 시·군서 식당허가 등을 받고 2개의 집입도로를 만들어 사실상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기존 주유소에 식당영업을 겸하는 사례가 늘어나 民願의 대상이 되고 있다.

技術都市건설 검토

산업육성·지역개발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도시 인근에 「技術都市」(Technopolis)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하여 마련, 고위층에 보고한 「기술도시추진방향과 시책」에 따르면 전국 주요도시 인근에 연구개발 기능 산업시설 폐쇄한 생활환경을 고루 갖춘 기술도시를 하나씩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래의 대규모 공업 단지과 달리 산업 학술연구 주거조건등이 조화된 신시가지 안에 6만~9만평의

중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각 단지마다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광통신 뉴세라믹스 항공기부품 산업 등의 첨단과학분야 중 하나씩을 선정, 특성을 갖는 기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KDI는 기술도시의 산업활동육성방향을 해당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의 업종을 선택, 육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대 도시권과 원활한 정보유통체제를 수립하도록 건의했다.

잠실지역 都市設計 확정

88년까지 3大都市圈 육성

서울의 잠실지역 286만 5천㎡(87만평)이 도시설계구역으로 확정 고시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잠실일대는 서울의 3대도심지의 하나로 육성되고 88년까지 국립경기장 부근 등 5개권역으로 크게 개발된다.

서울시가 마련,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중앙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잠실개발계획을 보면 △KOEEX 부근은 업무교역지구로서 해외교역관련업무 시범가로 조성하고 △잠실운동장 부근은 체육 위락시설 △石村湖 부근은 상업업무 위락 △국립경기장 부근은 문화체육 △風納내거리 부근은 생활권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KOEEX 부근=△해외무역관련 업무 시범가로 조성 △블록분할조정, 건물대형화·조형화·고급화 △테헤란路 영동대로변 주차진출입 금지 △강남소방서 이전 △교통광장설치 △交叉路상징조각분수설치

◇운동장부근=△체육판매시설중심 △통일된 건축선 지정 △잠실주변전면주차진출입금지 △1층 용도제한으로 소매상 상가조성 △운동장과 아시안공원 지하연결

◇석촌호주변=△지하철 입구 위치 변경 △불필요도로용지 공원활용 △잠실 4거리가각속소 △보행공간 확충

△충분한 전면공공공지 확보

◇국립경기장주변=△고밀주거개발 △경기장지원 편의시설 △70m 도로 공원가로 조성

◇松坡路주변=△전면 건축선 지정 △가로장치물 확충개선 △가로변緩衝, 植栽강화 △背面에 대규모 주차장.

都市設計 구역지정

김포공항~행주대교도로변

서울시는 김포공항입구에서 행주대교 입구까지의 도로주변 3.9km, 39만㎡(11만8천평)를 도시설계대상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 도로양쪽 50m 지역에서 건물을 신·개축할 때는 용도 외양 방향 높이 등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김포공항이 확장되고 김포공항~잠실운동장간을 연결하는 강남5로(양화교~행주대교)가 신설됨에 따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항로 도시설계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공항로 도시설계 구역은 당초 양화교~공항입구간의 6.5km에서, 10.4km로 늘어났다. 시는 이 구간 도시설계를 5월중에 마무리 지어 오는 6월과 7월의 공람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평론상 수상작 공모

“꾸밈”지서 창간기념

종합디자인 전문지 “꾸밈”지에서는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 제1회 건축평론상 수상작을 공모한다.

대학원생 및 기성 건축인(1부)과 대학재학생(2부)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이번 건축평론상의 주제는 작가론 또는 작품론으로 대상작가 및 작품에는 제한이 없다.

당선작에는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되는 꾸밈건축평론상 공모의 제출 마감은 오는 8월16일까지이다(문의762-5791~3).